

2006년 신년인사회-경제계

경제지표 완만한 상승, 회복세

경제 이야기는 자꾸 해도 지겹지를 않습니다. 작년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해서 2850억불에서 목표에 도달이 됐습니다. 연초 목표에서 3억불 정도가 적지만 이것은 산자부 이회범 장관께서 그만두실 때까지 마저 채워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웃음)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무역흑자가 235억불이고, 다른 분야의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약 150억불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고 받는 중에 환율관리가 걱정이 되어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더니,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약속 중에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임기 중이라는 약속이 아니었고 2010년쯤에는 2만 불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로 인해 원화가치가 올라서 잘못하면 제 임기 중에 2만 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달성하는 것은 괜찮지만 환율 때문에 조기 달성되는 일이 없어야 잘 될 것 같아서, 제 임기 중에는 2만 불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라고 경제부총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박수)

외국인 투자액도 2년 연속해서 100억불 대를 기록해서, 올해 역시 115억불을 유치했습니다. 2003년과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제가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 하지만 R&D센터가 한 10여개, 주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몇 개 그리고 물류센터도 한 12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개수가 큰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률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7%, 3.3%, 4.5% 그리고 4.8%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천천히 올라가는 산은 내려오는 길도 아주 천천히 내려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골이 깊지 않도록 잘 다져서 길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게 보면 5.2%라고 하는데, 잠재성장률을 돌파하여 훨씬 더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아주 견실하게 올라가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민간소비도 1.4%, 2.8%, 4.0%로 쭉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 개인에게는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국민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만큼 늘어난 것이 매우 참 기쁜 일입니다.

지표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것이 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제가 2003년 3월 제가 대통령 막 취임했을 때 295만 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상당히 늘어난 숫자였고 2003년 한 해 잘 하면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늘어나는 추세였던지 2004년 4월에 382만 명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정점으로 2004년 연말에 360만 명 정도, 2005년 10월에까지 310만 명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신용불량자가 310만 명까지 내려왔

다고 말을 했더니, 부총리께서 옆에 있다가 295만 명이라고 지적하셔서 조금 무안했습니다. 그래도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또 줄었다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어서 제가 부총리께 지적을 좀 받았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295만 명입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박수)

지금 7.7% 인데 7%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라고 해서 신용회복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등록된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등록하면 거의 대부분이 구제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신용불량자가 매월 새로 생겨서 등록하고 또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불자라는 말을 안 쓰죠. 이런 채무불이행자가 계속 생기고 또 졸업하고 하는데, 언제나 입학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4월을 고점으로 졸업생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들 개인적인 요인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경제시스템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안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분들에게 좀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앞이 나쁘고 뒤가 좋은 궤를 주역에서는 아주 좋은 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좋아 보여도 앞이 좋다가 뒤가 나쁜 궤는 별로 좋은 궤로 치지 않고, 앞이 나쁘고 뒤가 좋은 궤가 좋은 것으로 치는데, 그렇게 본다면 작년 한 해 형세는 좋았던 것 같고 올해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출발을 3.9%에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선홍후길의 길괘를 기대할 수 있는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지표가 주가라고 합니다. 주가가 자꾸 올라가려고 들먹거리는 것을 보니까 이런 좋은 현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자면 원인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비결이 뭘까, 제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웃음, 박수)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까지는 안 나올 줄 알고 한번 웃자고 한 썰렁 개그인데 박수를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높습니다. 어째서 경쟁력이 높을까 하는 부분은 경제이론만으로 분석되지 않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인들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4강 외교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우리 기업 광고판 우리 상품 가지고 별로 감동받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2004년에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하는 나라들, 새롭게 주목받는 나라들을 가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한국산 전자제품으로 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산으로 토스트 구워먹고 한국산 TV보고 한국산 자동차 타고 출근해서 일하면서 한국산 전화기를 사용한다고 전화기까지 호주머니에서 꺼내 보여 주는 것이 자주 경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나라들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느 나라에 가거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 영어는 잘 못해도 체질적으로 외교적 자질이 있어서 대접을 잘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다녀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의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러움이나 외경심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보고 이 나라와 교류 하면 뭔가 좋은 정보나 좋은 기술이라도 하나 줄 것만 같은 느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

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대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들이 이런저런 메모를 적어서 꼭 해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염치없는 내용이고 해서 내놓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막상 상대를 만나면 장관이 적어주는 것이라 대통령 월급 값이라도 하려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대개 다 들어줍니다. 저는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돌아오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녹음기처럼. 그런데 어찌 그게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자랑스러웠고, 그 모두가 우리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 주는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그리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경쟁력이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미래 희망 가질 수 있게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교육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걱정이지만 좋아질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은 자질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지만, 국제적으로 신뢰도 등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날로 바뀌어가고 있고, 대학교도 지속적으로 특성화를 통해 방향을 잡고 있어서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큰 걱정이라고 가장 많은 당부를 받은 분야가 노사관계입니다. 깔끔하고 편안하게 넘어오지는 못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그럭저럭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걱정인 것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지표가 좋아지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관계가 그럭저럭 넘

어울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있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어서 노동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잘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가 힘이 다 빠져서 투쟁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지표가 좋아지면 노동운동 조직의 제약이나 어려움들, 그 동안의 참았던 마음들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나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폭발적인 힘의 축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마음먹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노동운동이 조용한 때일수록 더욱 긴장해서 그와 같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기업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든 그와 같은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 감싸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노동자들이 함께 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상황은 희망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잘 안고 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원칙을 계속 견지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격차 심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 노동의 유연성, 규제 철폐나 완화, 자유로운 시장문제 등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총화로서 그런 정책은 아무리 잘 되

어도 마지막으로 총수요 부분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논리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내 소비시장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론이 먹히는 환경이 있고 그것이 듣지 않는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급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환경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수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수요의 궁극적인 부분인 소비를 진작시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또는 기업 간의 기술격차나 그 밖의 다른 격차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격차가 가장 핵심적인 격차이고 그 격차는 날로 벌어져서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아주 심해졌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 그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엔 어찌될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이 소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서비스업이 좀 더 많이 일어나야 하고, 많은 일자리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소비를 활발하게 해낼 수 있는 산업경제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높은 기술로, 높은 경쟁력으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중소기업으로 퍼져갈 수 있는,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경제에 있는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팀을 못 믿어서도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저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정책을 내놓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확신을 주는 정책은 아직 없

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의 개방에 대한 저항, 과소비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아닌가 하는 이런 광범위한 저항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부문이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예를 들면 몇 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이 지금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중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뒤까지 인구가 지방으로 환류할 것인가 지방경제가 언제쯤 살아날 것인가에 관해서, 과연 실제로 언제 효과가 날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라든지 소득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재정의 재분배 부분도 아마 지금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뭔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정치권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딪혀 있지만 아직 해결책이 분명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니,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막연하게 큰 소리만 치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데 대통령까지 신년 인사회 하는데 와서 우는 소리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궤
도에 들어가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도 올해는 좀 드리겠습니다. 우는 소리도
좀 해야겠습니다.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
드리는 일도 앞으로 좀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간곡히 제가 도움
을 청하겠습니다.

독장수의 재판 이야기 - 공동체적 책임은 지속적 성장의 비결

옛날 경상남도 창녕에 7살인가 9살인가 하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9살로 합
의하지요. 이 군수가 명판관으로 우리 만화책에도 나오고는 합니다. 하루
는 독장수가 독을 지고 산고개를 돌아가다가 회오리바람이 휩 부는 바람에
독지계가 엎어져 독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판관이라는 군수에게 가
서 민원을 제기해 보자는 생각으로, 원님 고을에서 독이 깨졌으니까 원님
께서 독(값)을 좀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원님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낙동강가에 나가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
는 배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배 사공들을 다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잡아다 놓고 ‘자네는 바람이 어디로 불기를 바라는가’ 하고 물으니,
‘당연히 남풍이 불어야 북쪽으로 가죠’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자네는
어느 쪽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가’ 하고 물으니 당연히 ‘북풍이 불어야 내
가 남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남
풍 불어라 북풍 불어라 하고 자네들이 기도를 하니 회오리바람이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독이 깨졌으니까 자네들이 독을 물어줘라. 그런데 사람
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뜻이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니까 뜻대를 백리 밖으로
귀향을 보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뜻대가 엄청나게 큰
데, 그것 들고 백리 밖으로 귀향을 가느니 독 두 개 물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사공들이 독값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위의 돌맹이를 자동차가 가면서 딱 튀겨서 옆 사람이 맞아 다치게 되면, 자동차도 배상책임 지고 서울시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독장수 재판 같은 법리를 가지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우리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같은 것입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폭설이 오고, 여름 되면 태풍이 옵니다. 태풍 안 와서 대통령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연말에 폭설이 내리니 그것도 또 제 탓인가 싶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다 옛날 제왕시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천재지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본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책임을 넘어 함께 안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기 좋은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이 이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사적 기업으로서 수지를 맞출 수 있으면 보험제도이고, 그 수지가 안 맞으면 국가가 재보험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과 재보험의 중첩된 제도를 잘 짜 맞춰서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작대기를 하나씩 쥐어주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무디어질 만큼 무디어지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쟁력이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속도를 늦추지는 않

으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새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비결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창녕 독장수 재판을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길, 대화와 타협이다.

이 회오리가 실제로 지금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정말 아주 작은 양보를 거부하고 몇 년씩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합의하고 가면 쑥쑥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너무 팽팽하게 대립해서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대화와 타협 그리고 그를 통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큰 틀은 게임의 룰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게임의 룰을 준수해 가면서 그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고 해서 아무 원칙도 없는 양보는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말해서 저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지어가는 큰 틀, 적어도 그 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해 온 역량과 질서 있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를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상호 간의 경쟁의 장에서 경쟁의 규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갈 국민적 역량이 그 동안에 증명됐기 때문에 역시 우리 기업 경쟁력도 높이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몇몇 분야에서서의 갈등도 우리가 한 발씩 물러서서 게임 규칙이라는 큰 틀을 존중하면

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계 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통합능력입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 부분의 경쟁력이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의 핵심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부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자체의 행정적 경쟁력이 아직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경쟁력 이것 하나만은 제가 확실하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업적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와 정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서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의 행정개혁 사례 몇 가지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분야의 혁신과정에서 생산된 시스템이 적어도 10가지 이상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이 국내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당당하게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과 그 밖의 여러 활동에 우리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점은 너무 걱정 마시고 올해에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의 모든 소원성취하시고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